

2016년도 제2차 회의록(요약)

2016. 5. 16.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 회의명

- 201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2. 회의소집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3.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 4. 8.(금) 08:00~09:35
- 장 소 : 웨스틴조선 호텔 오키드홀(2층)

4. 출석위원 및 회의 참석자

□ 출석위원 : 13인

- | | |
|---------------|------------|
| ○ 보건복지부 | 정진엽 위원장 |
| ○ 기획재정부 | 代 이찬우(최상목) |
| ○ 국민연금공단 | 문형표 위원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류기정 위원 |
| ○ 전국경제인연합회 | 송원근 위원 |
| ○ 중소기업중앙회 | 김광희 위원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이정식 위원 |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정혜경 위원 |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채원봉 위원 |
|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이길동 위원 |

- | | |
|--------------|--------|
| ○ 한국공인회계사회 | 윤경식 위원 |
|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김자혜 위원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호 위원 |

□ 기타 참석자

- | | |
|------------------------|---------|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박인석(간사) |
|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최홍석 |
|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강면욱 |
|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 | 이윤표 |
| ○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 | 신진영 |

5. 회의진행순서

- 개 회
- 2016년도 제1차 회의록 보고 및 채택
- 의결안건 심의 및 의결
- 보고안건 논의
- 폐 회

6. 상정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 16-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의결 16-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고 16-5	2016년도 제1차 회의록
보고 16-6	중기자산배분 TF 운영경과 보고
보고 16-7	2016년도 1월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7. 토론요지

□ 의결 제16-2호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정혜경 위원) 책임투자 조항 신설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작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관련한 개선 내용을 준비하겠다고 보고 하셨었는데, 관련 내용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보고가 안되고 있는지 궁금함
- (박인석 간사) 작년 삼성물산 합병 건 이후에 개별 건에 대해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위원 3명이 요청할 경우에 전문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고, 또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추진과 함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권한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 (정혜경 위원) 국민연금법에 분명히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에도 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어 재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수익률이 낮아서 벤치마크 수익률로 추종

하기 부적절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안인 혼합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HFRI 지수의 수익률이 실제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함.

- (신진영 성과평가전문위원장) 최근 15년 간 지수의 평균수익률이 3.5%임. 그런데 헤지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장기목표수익률을 미국 단기금리 + 4.5%로 했기 때문에 최근 15년 간의 수익률만 보게 되면 장기목표수익률에 미달한 부분이 있음. 계속해서 헤지펀드가 이렇게 낮은 수익률로 갈 거라고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최근의 헤지펀드 성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앞으로 단기간이라도 이런 트렌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장기목표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일단 투자를 하기 위한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2개를 혼합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기로 했음. 초기에는 50대 50으로 해서 가중치를 설정했지만 전반적인 시장 추이를 봐서 이 가중치는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함.
- (정혜경 위원)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비용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질문드림.
- (박인석 간사) 헤지펀드는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송원근 위원) 책임투자 부분을 국민연금에 명시하고 나서 기금운용지침에도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 이게 기금운용지침에 명시가 되면 기금운용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알고 싶음. 그다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시행령상에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을 거기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됨. 지금 그것을 진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거버넌스 변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음.

- (박인석 간사).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반영하는 것은 원래 의결권행사지침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적으로 좀 처리가 늦었음. 법과 지침에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사회, 지배구조, 환경, 이런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요소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1 원칙이고 그런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서 책임투자가 고려될 수 있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법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설치한 전문 위원회이고, 그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을 할 수는 있음. 지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음.
- (김광희 위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의결권행사지침을 검토하여 기금운용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음. 2014년 2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년도에도 한 번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이 없음. 그리고 2014년 2월 달에 이 기금운용위원회에 일주일 전에 받은 사항과 유인자료로 받은 사항이 내용이 틀림. 그 변동사항은 의결권행사위원회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는 것이었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논의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임.
- (이정식 위원) 이해관계자나 여기 위원회의, 대부분의 경우는 3분의

1이 발의하면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침과 운영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서 다음 회의에 안건으로 제시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박인석 간사) 위원님들의 의견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함. 2014년 기금운용지침 회의 안건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이 2월 24일 날 실무평가위원회를 했고 2월 28일 날 기금운용위원회를 했음. 회의 안건이 7일 전에 나가다 보니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의견이 정리가 안 된 안건이 초기에 발송이 됐고 2월 28일 날은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안건을 하다 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차이는 아니었음. 이미 기금운용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의결권행사지침에 일관성 있게 담기 위해서 했던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음.
- (김광희 위원)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는데 그 중요한 사항이 그 조항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게끔 돼 있었음. 또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무엇을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맞췄다는 건지 이해 안감.
- (최홍석 연금재정과장) 32페이지 기금운용지침 내용이 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결정한다고 돼 있고, 그 결정이 뭐냐 하면 4호에 관련된 내용임. 이것은 2006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의결권행사지침에 안 바뀌었던 부분을 맞춘 것이었으며, 단순 조문 정비로 그 당시에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해서 기금위에 올려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광희 위원) 지침과 운영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기 바람.
- (정진엽 위원장)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위원회 때 또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음. 더 의견이 없으면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의결 제16-3호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류기정 위원) 실무위나 전문위는 말 그대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무평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혹시 경미하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거나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됨.
- (박인석 간사) 경미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실무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안건을 보고 동의할 경우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그런 절차를 두었음.
- (류기정 위원) 단순히 의견만 물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림.
- (정혜경 위원) 서면심의를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함
- (박인석 간사) 대면 회의가 원칙임. 법령이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 법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규정에 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좀 부적절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서면회의를 하고자 함. 서면은 위원님들의 3분의 2의 동의 전제 하에서 서면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엽 위원장) 실무 입장에서 일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런 내용을 추가 한 것 같음. 이 경미하다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음.
- (송원근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열리기 4일 전에 실무평가위원회가 열린다든가 빨리 여기서 의결해야 되는데 의결정족수 같은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면 확대가 아니라 서면심의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함.
- (이길동 위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제동 장치가 돼 있다고 봄.
- (박인석 간사) 경미한 경우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 3분의 2가 동의하는 그런 사안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을 달았음.
- (이정식 위원) 법령에 그대로 맞춰서 자구 수정한다든가 그런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 인정할 수 있겠음. 위원들이 서명하는 절차는 형식적이지만 해 놓으면 신뢰도가 높아 나쁘지 않다고 봄. 규정과 지침 개정하는 절차를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음.
- (정진엽 위원장) 여기서 회의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듣기 때문에 사실은 다 검토를 하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회의록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 해두고 이 안건 내용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소수의견을 기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 보고 제16-6호 : 『중기자산배분 TF 운영경과 보고』

* 본 안건은 대외 비공개로 관리함

- 중기자산배분 TF 진행상황, 거시경제전망·자산배분체계 개선방안 등에 관한 TF 논의사항을 보고함.

□ 보고 제16-7호 : 『2016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잠정)』

- (정진엽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하겠음.
- (김상호 위원) 위원들께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림.
- (정진엽 위원장)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음.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8. 의결사항

의안번호	안 건 명	결과
16-2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16-3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안	원안의결